

잊혀진 금감원... 원장 공백 장기화



이정혁
西村브리핑

#. 지난 3월 30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하나가 꽤나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시행령'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의도는 짐작이 간다. '왜 부자는 낮은 이자로 혜택 받고, 가난한 이들은 고금리에 허덕이는가'라는 단순한 문제 의식이 뒤따랐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구조적 모순'으로 본 듯한 발언은 금융 상식을 근본부터 뒤집었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았다. 저신용자가 고율의 이자를 적용받는 것은 금융 상식 이전에 일반 상식에도 부합한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발언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금융 무지' 논란이 흔쾌하게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 문 대통령의 '금융 무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 계기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의의 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현 전 원장이 지난 5월 7일 퇴임한 후 50일 가까이 하마평만 무성한 채 금감원장 인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이전 금감원장 선임 때는 너무 빨라서 말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이 정무 첫 민간 금감원장인 최흥식 원장이 취임 6개월만에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물러나자 20일 만에 김기식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김기식 원장이 셀프 후원 문제로 취임 2주만에 물러났을 때도 20일만에 윤석현 전 송실대 교수를 그 자리에 앉혔다. 문제는 중도 낙마했던 다른 원장들과 달리 윤 전 원장은 3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확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히 이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제청권자인 금융위원장도 자리 변동이 없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윤 전 원장 퇴임 전과 직후에 몇몇 후보군을 골라 청와대에 보고하는 절차는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감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을 안하거나,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 상황이 만약 골프나 당구 등의 스포츠 시합이었다면 '늑장 플레이'로 페널티 카드를 받았을 것이다. 금감원장 인사가 방치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이 금감원을 잊은 것 아니냐"는 웃픈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

#.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 안정보고서'를 통해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 부채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한국의 금융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불안한 상태로 악화했다고 경고했다. 20, 30대까지 '영끌'로 아파트 매입에 나서 1년 만에 집값이 수억 원씩 폭등하고, '빚투'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주가가 사상 최고를 경신한 것이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이다. 글로벌 경제는 곳곳에서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각종 정부의 유동성 투하 탓 때문이다. 이런 대내외적인 살얼음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위, 금감원, 한은의 역할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금감원장 임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들과 국가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파이낸스&마켓부 대기자 lnh@metroseoul.co.kr

증권사 리포트와 '매도 의견'



기지수첩
박미경
(파이낸스&마켓부)

국내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매도(sell)'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다. 애널리스트는 매도 대신 투자 의견 '중립'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쓰거나 목표주가를 낮춰 제시하는 방법을 택한다. 아예 리포트를 발간하지 않기도 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자기자본 상위 10대 증권사 리포트에서 매도 의견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99.7%가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반면 CLSA,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기업 매도 의견 비율은

20%가 넘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기업과 개인투자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애널리스트가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자 해당 기업으로부터 '기업탐방 금지'라는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대폭 커졌다. 5월 말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수는 4771만개로 집계됐다. 우리 국민 1인당 1계좌 시대 가 열린 셈이다. 일부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리포트는 매수 일색이라며, 차라리 주식 관련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리서치센터가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순간,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란 본연의 역할이 희미해지는 셈이다. 리서치센터는 투자은행(IB)과 달리 돈

을 버는 곳이 아니다. 투자자를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곳이다. 애널리스트가 투자자 눈치를 보지 않도록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 보고서에 대한 비중이 높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따라 매매가 이뤄질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애널리스트에게 직접 주어지는 등 강력한 유인책이 존재한다. 물론 국내 증권사는 독립성이 보장된 외국계 증권사와 구조적으로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실제로 증권사의 법인영업 부서와 리서치 부서 사이에는 실질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애널리스트가 양질의 리서치 자료를 소신껏 생산해낼 수 있도록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mikyung96@

오늘의 운세 6월 25일 (음 5월 1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으니 어쩌나. 48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60년생 어느 경제학자는 돈은 생활의 피라 했다. 72년생 욕심이 생기기 번뇌도 따라온다. 84년생 운이 좋으니 평소에 쌓은 실력을 발휘한다.



37년생 비몽은 흥함을 길함으로 바꾸는 청경. 49년생 손풍에 하루가 유유자적. 61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기쁨이 넘치는 날. 73년생 부귀와 빈천은 명예 달린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했다. 85년생 앙타리나 새로운 만남을 조심.



38년생 밝은 기운은 더욱 빛을 향해 나간다. 50년생 부자가 되는 것은 일반적 바라는 마음. 62년생 보람 있는 하루. 74년생 결혼하여 과소비가 급증되니 가계부를 생활화 하여 보라. 86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술술 잘 풀린다.



39년생 남에 대해 관대함을 갖자. 51년생 파란색과 숫자 1이 오늘 행운을 준다. 63년생 달빛이 찬란하니 좋은 옷을 입고 나가 본다. 75년생 긴 머리 소녀처럼 아름다운 인연이 오다. 87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40년생 기도의 가피는 무한대이다. 52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64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이다. 76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마음이 불편한 하루. 88년생 튀려다가 주변에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41년생 농업이 천하지근본이라 했듯이 땅을 소중히. 53년생 둘다리로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라. 65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일을 처리. 77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니 부단한 노력이 중요. 89년생 상대 난폭운전을 주의.



42년생 마음이 선하면 하늘도 감응한다. 54년생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66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안 가는 것이 좋다. 78년생 직장과 주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칠 수 있다. 90년생 노력의 결과가 좋다.



43년생 지성이면 감천이 된다. 55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이니 서글퍼 마라. 67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79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이나 영양섭취는 자제. 91년생 금전 문제로 가족 간의 의견충돌예상.



44년생 비가오기를 학수고대하듯 기다려진다. 56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68년생 입으로도 웃으면 화가 몰라날 것이다. 80년생 기대하던 것일수록 잘 실패야 실수가 없다. 92년생 도박성으로 가치관이 흔들린다.



45년생 면역력이 떨어지니 비타민을 찾는다. 57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보살피라. 69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좀 지체. 81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참아야 한다. 93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46년생 자손이 새 인연을 데려오니 기쁘다. 58년생 직장과 가족을 위해 좀 더 기여하고 싶다. 70년생 격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82년생 시간은 금이니 허비하지 말고 활용을 잘 해야 한다. 94년생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47년생 인생의 의미는 운명론에 빠지지만 해서도 의미 없다. 59년생 기쁨과 슬픔은 동전의 양면. 71년생 마음이 우울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83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95년생 내 마음의 연등을 밝히듯 부모님께 안부.



김상회의四季
초과일 연가

석가탄신일을 기념하는 봉축행사인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장관인 연등축제가 이 년째 열리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월에 오게 되는 초과일 행사는 종교적 의미 그 이상의 행사이다. 무명에서 싸여 생로병사의 고(苦)를 숙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순간순간 행복과 함께 하며 스스로 자유롭게 해탈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준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한 계절이다. 싱그러운 연등이 사방에 펼쳐지고 하늘은 더없이 화창할 때 색색의 연등이 도량 안팎에 걸려 있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극락이 바로 예인가 싶은 마음이다. 추석을 가르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기본 기원과 감탄이 있다. 초과일 역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과일 때만 같아라'라는 감탄도 그리 과한 경탄은 아니리라. 게다가 연등에 가족의 이름과 발원을 적어 연등 꼬리표를 붙이는 그 마음은 순일하다. 평소 복덕의 원인을 지움에 게으르면서도 이런 바램을 적는 게 좀 욕심이 아닐까? 하는 소심한 가책을 살짝 가져보기도 한다.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을 달면서 절에 보시도 올릴 수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보람이 된다. 필자가 주식하는 월광사에도 음력 삼월 들어서면서부터 연등을 달기 시작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부진하고 형편이 어려운 신도분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 월광사 신도님들께서는 스스로 인연 있는 분들이 등을 달고 있다. 신도분들은 알아서 각각의 처지에 맞게 보시금을 올려주신다. 정성스럽게 등을 달면서 축원 또한 함께 올린다. 불법적으로나 증생적으로나 복과 지혜가 항상하기를 발원하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은 늘릴수록**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를 자극하는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8
				5	3
6	4	8			
		3	4		7
4	1	9		2	
3		6	7		
			2	3	1
8	7				
3					

9					8
2		9	7		5
			1		
		3		7	
6	8			4	3
4			7		
			2		
5		7	3		2
2					7

정답

6	9	8	1	9	7	2	8	1
7	9	2	8	6	1	1	8	9
1	1	8	8	2	9	6	9	7
8	7	6	2	1	9	9	1	8
8	2	9	6	9	1	1	7	8
1	1	9	7	8	8	9	6	2
9	6	1	1	8	8	7	2	9
9	8	7	9	1	2	8	1	6
2	8	1	9	7	6	8	9	1

1	9	9	1	6	7	8	2	8
2	7	8	8	9	1	1	6	9
6	1	8	8	2	9	1	9	7
8	9	1	2	1	9	6	7	8
8	2	7	6	9	1	8	1	9
9	1	6	7	8	8	2	9	1
7	6	2	9	1	8	9	8	1
9	8	9	1	8	6	7	1	2
1	8	1	9	7	2	9	8	6

과난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정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72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726호	